

(은혜와장리교회)

기독교연합기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한교연 10-4차 임원회, 통추위위원장에 권태진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송대섭 목사)은 지난 8월 15일(주일) 오후 3시 경기도 양주 에버그린호텔 세미나실에서 제10-4차 임원 회를 열고 3기 교단에 대한 신규 가입 건을 심의하는 한편 연합기관 통합 추진을 담당할 통합추진위 조직을 구성했다.

대표회장 송대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신규 가입을 청원한 3기 교단 총 40여 개 교회 가입신청서와 바리새신앙으로 연합회의 심사 보고서와 심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가입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가입교단 인준을 위한 실행위원 및 임시총회 개최 관련은 대표회장에게 위



임회기로 결정했다.

임원회는 또 최근 연합기관 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추진위원회에 직접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를 선임할 바 있으나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한 통추위를 상임회장 원종복 목사

등 30여 개 사기를 포함해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목사(직전 대표회장) △위원장 원종복 목사(상임회장) 김요충 목사(상임회장) 김학범 목사(상임회장) 김건근 목사(사기)

소외된 이웃 섬기는 단체 초청 간담회

(사)한장총, 격려금 1백만원도 전달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중준 목사)는 8월 13일(금) 오후 3시 한장총의 소외된 이웃사랑과 나눔과 섬김 활동의 전통을 이어가며, 무더위와 코로나19 감염증 펜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을 지속하는 지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온 추위를 통해 섬김 활동을 홍보하고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단체를 한장총 회의실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매년 사회복지와 소외된 이웃사랑과 섬김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행사가 이어온 한장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움으로 해당 단체의 대표를 한장총회의실로 초대하여 간담회



와 격려금 전달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선교단체는 위크리아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대표 임규복 목사), 기흥 무료급식소(대표 이승준 목사), 나눔선교회(대표 최준환 목사), 대한외 발사량 공동체(정만중 목사) 등 4개였다.

한장총 총무 홍연식 목사의 사회로 사회

원 간담회는 회계연속성 장로의 개회기도와 대표회장 김중준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각 선교단체의 대표들이 단체의 소개시간에 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각 단체별로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 촬영 후 행사를 마쳤다.

한기총, 임원회 소집 공지

임원 임명됨에 따라 임원회 개최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8월 11일(수) 한기총의 임시총회 개최 및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임원 회를 임명하고, 임원회 개최를 공지했다.

한기총은 정관 제19조 2항, 운영세칙 제3조 2항에 의거 공동회장에 김충수 목사 외 14명, 공동부회장에 최봉수 목사 외 21명, 총무에 한정수 목사, 서기에 황태광 목사 등을 임원으로, 정관 제20조 제3호, 운영세칙 제9조 1항에 의거 사무위원장에 이병순 목사, 감사위원장에 김성진 목사, 감사위원장에 이병순 목사 등을 각각 임명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의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회비납부의무 등 정관상 회원의 의무 이행 여부, 행정서류 상에 여부, 교단 및 단체 안배의 원칙 등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임명대상 교단 및 단체를 선정했다"라고 임원 등 임명 배경을 밝혔다. 또한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가임명 또는 변경임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임원이 임명됨에 따라 한기총은 제30-1차 임원회 소집을 공지했다. 이번 임원회는 안건으로 가 해별 청원의 건, 나, 감사 선정의 건, 다, 회계/행정서류 선정의 건, 라, 회비 납부의무 미이행 단체의 건, 바, 임시총회 개최의 건, 가타안건 등이 상정됐다.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 촉구

기독교개혁신교단협, 광복76주년 8.15메시지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철 목사)는 8.15광복 76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자행했던 과거의 만행에 대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사죄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대표회장 양정철 목사는 "1945년 8.15해방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적인 투쟁과 애국심의 발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광복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슴깊이 새기며 통일되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켜주는 나라다. 그러므로 코로나 질병이 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며, "덕후 더 기도하고 소망가운데서 이

을을 해나가지"라고 밝혔다.

양 대표회장은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적 존엄성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그때에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회장은 끝으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통일과 자손만대에 이터 한 유산을 물려줄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며, "자유 통일을 앞둔 선구자들의 애국애족정신과 한민족의 위대한 민족성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기감, 8.15 제76주년 맞아 메시지 발표

하나님의 역사, 남과북이 함께 경험하기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는 8.15 제76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3일(금) 광복 76주년 및 2021년 남북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했다.

메시지는 "8.15. 이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제 강점 시기에 민족과 교회가 겪은 고난과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삼키고 무릎의 사기를 반박하여 고백한다. 민족의 수난과 광복을 기약하고 감시함으로써 제2, 제3의 8.15해방의 감격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는 일이 일어나 중요한 과제(기)를 깨닫게 한다. 수난과 해방을 기원하는 지금, 우리 자신부터 청산과 극복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특히 한 것과 세울 것,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언제나 당면 과제이다. 일본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공존

과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메시지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언급, "한국교회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운데 당국 및 보건 의료진과 생체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편에서 서서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며 코로나19를 지워할 하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압제와 전쟁과 분단으로 일찍이 20세기의 폭력과 비극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기독교학술원, 성령과 함께하는 신학 수련생 모집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이 영성학 수(修)과정 12기 수련생을 모집한다. 기독교학술원은 1982년에 설립된 성령과 함께하는 신학과 학회, 구원을 추구해 왔다. 39년 전통 가운데 영성학 수(修)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한 박사는 "영성학 수(修)과정은 단지 학문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이는 성령, 순종, 섬김의 실천이다. 영성수련은 하나님 말씀 묵상과 성령과의 동행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러 "교과과정에서 선구자에 나타난 영

성 사상을 연구하고 교부들이 이미 걸어간 영성의 전통을 공부하려 한다"며 "영성수련에 깊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을 모집하고 자매 학회소수의 수련생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 "교과과정에서 선구자에 나타난 영

기독교학술원 영성학 수(修)과정 수련생(12기) 모집

본원은 1982년에 설립된 성령과 함께하는 신학과 학회, 구원을 추구해 왔다. 39년 전통 가운데 영성학 수(修)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 대상

- 1. 신학도, 목회자, 성도, 일반인
- 2. 영성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자
- 3. 영성학 수(修)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모집 일정

- 1. 모집기간: 8월 15일(금) ~ 8월 21일(금)
- 2. 접수처: 본원(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또는 전국 각지 지부
- 3. 접수방법: 전화(02-570-7548) 또는 방문
- 4. 접수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모집 절차

-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2. 면접(8월 22일)
- 3. 합격자 발표(8월 23일)
- 4. 등록금 납부(8월 24일)
- 5. 수련생 오리엔테이션(8월 25일)

문의: 02-570-7548

목회자유가족돕기,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총 36명에게 약 4천5백여 만 원 수여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대표 김진호 목사, 기감 전 감독회장)는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8월 12일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회에서 갖고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약 4천5백여 만 원)를 전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김진호 목사를 비롯한 대학생 11명, 박주인 장을 비롯한 고등학교 10명, 이무호 군을 비롯한 중학생 6명, 서주에

아니를 비롯한 초등학생 5명, 파우나 아동을 비롯한 유망학생 3명과 김진호 사모에게 약 4천5백여 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운동본부 총무 최우성 목사의 사회로 남승복 목사(기감 대표회장)의 기도, 최치훈 학생의 특별찬양, 장부연회 장영수 감독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장영수 감독은 교신 9:16-18 말씀을 본부

으로 한 "열매가 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성령상 여분들에게 장학금을 하사해 주신 분들은 모두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여분들에게 희생을 주었다"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답하기 위해서는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단단한 믿음 속 해 나가는 영광을 드나치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강조했다.

김진호 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지 12년째다. 우리 운동본부로 통해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라며, "간강이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회와 성도들의 찬양과 찬양으로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로 인해 일부분 참석할 수밖에 없다며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신교로 총무 오영철 목사는 격려사로 운동본부 사무총장 권종호 목사는 축사로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글로벌선진학교, 청룡기대회 우승

전국 중학교 축구부 최강팀 위엄자랑

글로벌선진학교 우승팀(가운데)은 8월 3일 경남의 강호 FCU15를 5-0이라는 큰 점수차로 제압하고 42연승을 달성했다. 8월 4일 열린 전남 순천FC와의 42기기는 평행한 점진으로 전반전을 0-0으로 마무리하고 후반 시작 2분만에 순천FC가 1골을 득점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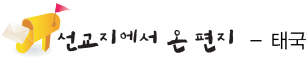


부선진학교(이하 선진)는 8월 3일 경남의 강호 FCU15를 5-0이라는 큰 점수차로 제압하고 42연승을 달성했다. 8월 4일 열린 전남 순천FC와의 42기기는 평행한 점진으로 전반전을 0-0으로 마무리하고 후반 시작 2분만에 순천FC가 1골을 득점했

다 정해목 선수가 중거리 발리슛으로 동점을 이뤄냈고, 후반 종료 직전 이서현 선수의 헤딩골로 최종 결승점을 기록했다.

8월 6일 열린 경남 안동중학교의 결승전 후반 15분, 상대의 앞선 진형에 정해목 선수의 슛과 같은 패스를 받은 정해목 선수가 단독

드블을 골로 연결시키며 우승컵에 한발짝 다가섰다. 후반 2분에는 고재민 선수가 추가 골을 득점했다. 안동중의 추가 골이 있었지만 후반 수비 전향과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글로벌선진학교의 골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신교지에서 온 편지 - 태국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태국의 회복과 복음의 확산 위해 기도 당부

방콕·안타고교회

태국은 지금 막대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만 명 가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2개월 만에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다시 비대면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라이 집사 가정에 20대 초반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동생과 40대 후반인 양모도 감염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감기 증상뿐이었지만 트라이 집사는 위험하고 힘든 지경까지 갔습니다.

방콕이 부족해서 임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에서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성도들과 매일 저녁 온라인 기도회 함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의 지리에 함께 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주 회복이 되고 격리도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교회는 성경 공부 및 쿠티 모임 등이 중단되고 소수의 예배 팀만 교회에 와서 1시간 단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온라인 기도회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힘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일정한 때에 퇴근하고 기도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도를 믿음 가운데 일컫는 마음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믿음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이 이 때를 위한 복음의 유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대요로가게의 문을 닫아야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부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공원에서 이 소외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공급하셨듯이 성도를 각 가정마다 도우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 집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부 배달만 되는 상태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2달간 절반가량 깎아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신청해서 받게 되고, 가슴에 통통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든 통통이 사라졌다고 간증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를 각 가정 아이들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힘과 어려움 속에서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밧 차에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눠 주려고 하고 장 강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도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싶어서 돌아오게 하길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전통 및 헌정 헌법교제



▲온라인 목회자 모임

하나님의 은혜로 1층 예배실 전구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형제들 한이여 물체가 생겨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기존 있는 전구들이 오래 되어서 모두 교체하기로 했는데, LED 전구에 비해 전압이 낮아져서 전구가 타고 전선을 다 교체하는 등 3일이나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잘 마무리하고 수리를 마치고 다시 예배실이 환하게 밝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선교현황의 변화

방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이 코로나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상황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역에 가면 격리를 해야 하기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은 그를 영상통화로 대체하고, 함께 계획했던 목회자 가족수련회도 연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수와 확장 공사가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활기찬 선교의 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와 반부교회

평양 밖과 치안미에 있는 신학교(회(원)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감염이 되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실정인데 얼마 전에 교단 목회자 한 분이 소환하시고 교단의 목회자 몇몇 분들도 어려움 중에 있

습니다. 반부교회는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코로나 행자가 다수 발생한 상태입니다. 성도를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사색하고 있는 쉼터로 사가 강력한 기도를 요청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대요로가게교회

막대요로가게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 하던 셀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목회자 부부와 목요일마다 전도하던 활동도 잠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공단이 많은 지역이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번 지방교회 직업을 마치고 나서 오래되어서 온가치 어려웠던 예배당 전통 모두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예배당 전장 합판 전면교체와 벽걸이용 선공기를 설치하고 내부 페인트칠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일 전회는 나노 전도사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긴급 휴직되는 일도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가 없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건강과 전도의 문을 열 아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릿통개우교회

치치나 전도사(릿통개우교회) 어머니가 연세도 고령이고 거처 질환이 있어서 코로나를 건네지지 못하고 2주 전에 소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딸과 손자들도 감염이 되어 입원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매주일 온라인 예배에 전성도가 참여하게 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2. 코로나에 감염되어 회복 중에 있는 치치나 전도사 여성들과 조카들을 치료해 주소서!

3. TAM(Thailand Antioch Mission)을 통해 50개 교회 개척이 이뤄지며, 태국 기독교인 1%를 넘어 10%에 이르게 하소서!

4. 지방교회들의 부흥과 성장과 목회자들,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제복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5. 부친(김수정 목사)께서 노환(88세)으로 자식을 도맡아보지 못하시는데 주님 인도해 주소서!

6. 저의 부부와 자녀들(주신, 주은, 한이)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학업과 직장생활을 인도해 주소서!
기도와 헌신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신 교화와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하시고 은혜와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김복룡 · 사비사 선교사 드림



▲온라인 기도회

“일방적인 십자가 침략 철거는 교회 탄압이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십자가 철거를 따라 하려는가?

서울시가 지난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에 취한 교회 침략을 전수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노후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자체가 관내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7,909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교회 십자가 철거에 의한 안전사고가 얼마나 있었는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에서의 대형 화재 사례는 약 1,800건인데, 그 중에 교회의 십자가 철거 사고는 2건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서울 시내 교회 전체의 십자가 철거를 접한 것이라고 나온 의도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십자가 철거를 하나의 시설물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 상징물을 교회에 부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두 번째는 서울의 수많은 건물 가운데 이것만 교회라는 것을 안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현에 명시된 중

교의 자유가 있다. 그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십자가 철거에 대하여 갑자기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점검(8226:조사와 혹은 철거를 공표하는 것은, 기독교가 기발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십자가 철거가 노후하여 위험성이 상존한다 하여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의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등급을 매겨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종속으로는 기독교와 서울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철거를 제거한 후 다시 복원시키느냐이다. 만약이면 약속도 없이 십자가 철거를 제거한다면 이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없애려는 암시(暗示)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서울시의 모 시의원이 십자가 철거 안전 점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발단은 아닌가?

따라서 서울시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철거를 철거하려는 계획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기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

다면,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십자가 철거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교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새것을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의 십자가 철거 계획이 종교 박해 목적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증명된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협력자를 구하며, 서울시는 이미 이런 계획을 안토니오 사회에 유보시켜 그 진위(眞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규명하여,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게 하라.

십자가 철거는 교회 건물 일부로서, 이에 관한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또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수시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보강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 의뢰하여 받고 우선적으로 해당 교회가 노력하고, 부족하면 다른 교회들이 도와야 한다. 한국교회에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각 교단, 연합 단체, 지역 기독교 연합회, 이웃 교회와 하나가 되어, 한국 기독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한국교회연합회 -

▶만연회 이사진

정원인은 “처녀가 동성애에 성향된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며 “처녀가 동성애자임을 아는 순간, 세상이 멈추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죽었다”며, “그 이후 점을 이룰 수 없고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 제발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정원인은 남인수 의원과 정준수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 결혼을 안 한 비혼자를 법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며 “남자와 남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자와 여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했다.

이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28일에 이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고 했으며, 8월 중에 다시 논의한다

고 한다”면서 “일부러저를 근거로 한 헌법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철회해 통과시키지 말라. 부모의 마음에 대항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은 10만 명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군 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매달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자,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적·철학적·신앙적·영성적·창안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거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선물로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주소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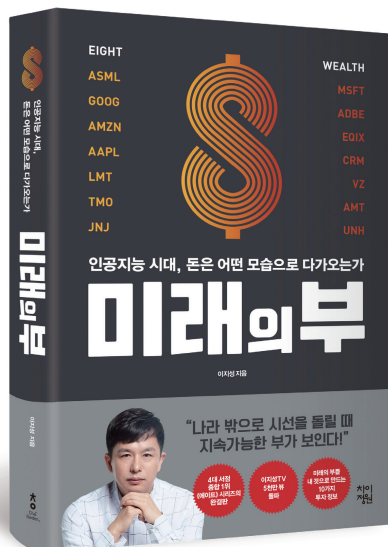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이지성 지음 | 값 17,000원

이지성이 전하는 미래 경제에 관한 놀라운 통찰

미래의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석유는 데이터로, 부동산은 데이터센터로
모든 것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부로 올라타는 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문의전화 02-334-7932 차이
저민

기독교 콘텐츠전문가 양성, 히즈쇼와 MOU

아신대, 교육 현장과 신학교를 이어 실제적인 기독교 리더 양성 기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모든 교회들의 사역과 활동이 축소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사역이 확대되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사역의 장기화로 기독교 콘텐츠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오프라인에 익숙했던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한국교회는 미래 온라인 사회를 준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히즈쇼(His Show)는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단체이다. 이미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어린이 유튜브 채널 7.4만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5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히즈쇼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히즈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독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500개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은 재미있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있다.

아신대학교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시대의 필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새로운 학부제를

도입한다. 2022년부터 모든 신입생은 2개 이상의 전공이수를 통해 통합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로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특별히 아신대학교는 교육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히즈쇼와 아신대학교는 8월 4일에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위해 MOU를 체결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교육하는 학교와 사역 현장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세계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학생들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현장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독교 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인된 제반이 없는 온라인 글로벌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통한 세계 선교 사역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중앙교회, 비전선포식 인재양성에 박차

선교사 500가정에 30년간 120억 지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회장 최종현 목사)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또 다른 30년 앞을 내다보며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약간간만의 교회 간격을 마친 직후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당중앙교회도 창립 이래 일관되게 지켜 온 '한 사람이 전 병을 들고, 형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인물이기를 실천한다'라는 비전을 위해 과감하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분당중앙교회 최종현 담임목사는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에베레스트호텔에서 "새 에베레스트당과 함께하는 비전선포식-축복을 통해 이루는, 인물이 실천의 또 한 시대를 열며역사 속의 교회를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교계 언론 기자회견을 가졌다.

분당중앙교회와 이번엔 선포한 비전의 핵심은 2022년부터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30년간 후원하고, 그 형식을 연금 납부'로 하는 것이다. 20년 불입 10년 거지 후 시작 30년 시정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매년 6억 원씩 총 1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회를 초월해 2022년 기준 1차 만 42세 2차 만 45세 이하 선교사들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배석한 한 금융회사 임원이자 분당중앙교회 교인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뒤까지 선교사들이 수령하게 될 금액은 기초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목사는 "이 선교사 연금은 기본생활비 확보로 한국교회 선교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후후 가능한 500가정을 더 추가해 선교사 1,000가정의 은퇴 후 문제 근본적 해결을 추가로 기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평생

한신에 온 선교사들이 말년에 생활고를 겪는 안타까운 일이 많기에, 그들의 노후를 보듬어 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부담 없이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분당중앙교회는 또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바로 세움을 위한 각종 언론매체 최고 언론 인물 양성을 위해, 최소 10년간 100명 이후 가능 시 추가 인원을 후원한다. 10년간 매년 1인당 6천만 원씩 10명, 10년간 총 100명에게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하나님나라에 기여할 청년 인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 및 양성한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 "매년 10명 정도의 최고의 언론 인재를 선발해 한국교회에 바른 여론을 주도할 인재들을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3개월간 서현동 교회부지 매각이 완료되는대로 발인을 실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목사는 이같은 비전 선포에 대해 "역사 속의 교회란 그 발전과 주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지혜와 깨달이 보여 주는 것이 그런 그림으로 담고, 의미지어지고, 역사 속에 존속하는 것"이라며 "인류에 실재는 특별히 마음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의 호흡으로서, 한 사람이 전병을 들고, 형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라' 나의 안에서로서 성도들의 삶이며 기쁨이고 감격이고 우리의 비전으로 선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밀알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 돕기 '기부 라이딩'

8월 14일부터 이틀간 포항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386km 완주

밀알복지재단이 사회적 약자 돕기 위해 '기부 라이딩'을 진행했다. 이번엔 진행한 기부 라이딩은 시청각장애인의 소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정보단말기인 '한스네' 마련을 위해 기획했다.

'한스네'는 청각과 문자를 상호 호환해주는 기기로서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특수나 공부, 문서 작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도 가능해 정보에 감격하기나 모바일 매체도 할 수 있다.

코로나 장으로 인해 경제적 지장이 어려운 대부분의 시청각장애인은 5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기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전자정보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자정보 단말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보조금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청각장애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지원 재단은 우선지원 대상을 학생과 구직자·취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은 우선지원 대상에 속하기 어려운 데다, 전자 활동이나 소용 능력을 보는 심층면접 과정에서도 시청각장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우선우려를 받기 어렵다.

경제적 부담으로 '한스네'를 구매할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들은 사회와의 소용이 단절돼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어려움을 놓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밀알복지재단 유원식 이사장님부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하에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 영일교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총 386km를 자전거로 달렸다.

모금 목표는 3천만 원으로 기부 라이딩 동참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후원 장려로 함께할 수 있다. 모금 목표 달성 시, 모인 후원금은 '한스네' 5대를 구매해 전자정보 단말기가 필요한 시청각장애인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부 라이딩에 나서는 유원식 부장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장차 활동이 가로막힌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을 돕고자 인천 서서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총 633km를 자전거로 달리는 '833 기부 라이딩'을 기획·진행한 바 있다.

당시 모인 1천 여여만 원의 후원금은 안습실에서 제작된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 오페라스트리계단 안습실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사용됐다.

유원식 부장은 "전자정보 단말기 한스네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소용으로서 세상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취미로 시작한 자전거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고고 도울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주셔서 시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간 안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진 요셉 그라나 저자는 요셉의 꿈이 아닌 그의 삶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 아버지의 관에 속해서 안락무인인 요셉은 형들의 침투로 폐지에 된구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에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요셉의 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뤄졌다! 저자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미숙한 사람이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매일이 힘겹고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바란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저자: 홍인기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08-11 | (128*188mm 176p) | 판매가: 10,000원

교리의 기원



'교리의 기원'은 교리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어떻게 과거가 특대 교리의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은 꼭 인정되어야 하는데, 역사적 분석은 기독교 신학이 가장 흥미로운 작업이 아니라, 미분하고, 세심한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기록물이라는 인상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과거의 흐름에 미미 선택된 패턴을 부여함으로써 과거를 잘서고 신학적 전통으로 종합하려는 사람들의 세련된 분석을 뒤집는 현대의 비판적인 신학적 고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이며 서술적인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적이거나 규범적인 것 사이의 창조적인 변동을 담고 있다.

저자/역자: 알리스터 맥그래스/류성민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2021-08-20 354p | 판매가: 25,000원

바울과 믿음 언어



이 책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의 개념을 연구한다. 나세이 굿터는 바울이 사용한 믿음 용어가 1세기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로마 세계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개념들의 넓은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바울의 여러 사신을 검토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믿음 언어의 위상성과 복잡한 부분들이 우리가 바울 사신에서 얻은 신학적 결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목한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자신의 문화적인 형식에 담긴 개념들, 장차 바울 자신의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개념을 부여할 때 우리는 성경 본문을 오해할 수 있다. 신학 성경의 points 용법과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풍성한 자료와 믿음의 만민이론을 제공한다.

저자/역자: 나세이 굿터/송동민 | 출판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발행일: 2021-08-09 | (147*220mm 384p) | 판매가: 22,000원

한국 교회 7가지 죄



교회의 리더들은 사람들의 진정과 세상의 인기, 성공하려는 유혹, 영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의사는 좋은 직업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직업입니다. 성경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포함한 영적 리더들도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기 때 문입니다. "무릇 밭은 밭에 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할 것"이라 (마 13:12). 세례요한처럼 "그는 흠이 없어 하였고 나는 하야야 하리라" (요 3:30).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행 13:2).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 (행 14:15)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모심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 한재 | 출판사: 도서출판 두노는

발행일: 2021-08-11 | (135*200mm 236p) | 판매가: 12,000원

성서원, '성경의 노래' 출간 기념 이벤트

총 1,500권 무료 증정, 오는 8월 말까지 진행

성서원에서 성경 전체 1,188장을 시로 읊고 찬송으로 노래한 '성경의 노래' 출간을 기념해 독자들에게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

신앙자들은 '성경의 노래' 5권 '신약' 편을 받은 뒤 유투브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계속 찬송을 나누며 골라 직접 부르는 영상을 게재하면 된다. 책 수령 후 2주 이내 독서 후기를 올려도 된다. 단 택배비는 작별이다.

이벤트는 총 1,500권을 무료 증정하는 방식이며,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이다. 신청은 성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5권 '신약' 편은 35,000원에 달한다. 접수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성경의 노래'는 성경 전체 전경 1,188장을 각 장마다



도록 각 장을 일일이 4권 4행으로 풀이하고, 곡을 선정해 개작하고 악보까지 하나하나 정리했다. 곡은 찬송가 등을 활용했다.

저자 김영진 장로는 방대한 문량과 어려운 어휘, 고대그리스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유연은 열매까지 약 50만 명이 우물을 파며 여러 지역으로 파내려 갔으며, 한지 소식에 따르면 이만 지난 3개월 동안 약 100만 명이 국내 실행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회 아프간 관심 촉구 성명 발표

국제사회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병환)은 지난 8월 14일(목)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급격한 경제 변화로 인해 아동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다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내 학교 폐쇄, 극심한 식량 부족과 더불어 파산민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과 가족들이 은신하거나 SNS상에 오르고 있는

며 이들의 기관별이 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 80만 명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인 1,800만 명이 인도적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인구의 30% 이상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임명

아동권리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아동 참여 조직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아동권리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아동 참여 조직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권역 대표단 발대식을 최근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는 아동 참여 조직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총 7명의 권역 대표단이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권역의 아동권리 실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소속 인원 약 1,600명은 ▲아동 관련 법과 제도 ▲놀이 및 여가 ▲미디어 환경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정은혜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정책 및 제도 개선 옹호 활동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은혜 전 국회의원은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제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대식에 참여한 이주연 아동(17)은 "굿모션 활동을 통해 아동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고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점이 가장 뜻깊다며,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권역 대표단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며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아이들 편에서 아동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에는 현재까지 2,210명의 아동이 참여하며 아동권리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동이 공공기관 등 '재개발'이 운영을 비롯해 서울시 강동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내 아동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한동대, 양곤기술대와 데이터 캠프 진행

한동대학교총정 정순웅에서 최근 미얀마 양곤기술대학과 빅데이터 실용화 캠프를 통해 대·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양곤기술대학 국제 미얀마 유학생, 공과 학생 등 학생 40여 명과 최혜봉 한동대 ICT강습학부 교수, 조현재 포스트박사과정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R 언어 및 데이터 전처리 도구인 코딩(Google Colab) 활용법, 스타터 미션, 데이터 분석 등의 강의를 제공했다.

최혜봉 ICT강습학부 교수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한국과 미얀마 학생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보는 기회를 접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현재 경영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얀마 학생들의 열의를 보며 강의로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동대는 유네스코 유니트윈의 미얀마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미얀마 대학들과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와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마다가스카르 긴급구호

"아프리카 덮친 최악의 가뭄에 '기아 팬데믹'... 도움의 손길 절실"

국제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위원장 유원식)은 심각한 가뭄과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다가스카르 식량 지원 긴급구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아대책의 이번 구호 사업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처한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은 기후변화가 야기한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130만 명 이상의 영양실조 환자가 발생했다.

남부지역에만 114만 명이 긴급 식량 구호를 받아야 하며 이중 1만2천명은 유엔난민기구(UNHCR) 기준 최악의 식량 안보 단계인 '재난(Catastrophe)'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은 10.7%로 13만 명에 달하며 아동 중 75%가 식량 확보를 위해 학업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대책은 한국의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툴라(Tulak) 및 암부아시리(Ambouasiri) 주(州)에 배식캠프를 설치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먼저 각 피해지역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물품을 확정하

고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 긴급식량키트 제공을 시작했다. 긴급식량키트는 5인 가족의 2주 사용량에 해당하는 ▲쌀 ▲설량 ▲소금 ▲식용유 ▲옥수수 등 한화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이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탄자니아에 식수시설 지원한다"

한국제지, 월드비전에 후원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병환)은 글로벌 GK 포 워터(Global GK for Water) 2021 SNS채널 챌린지 의 후원사인 한국제지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

았다고 밝혔다. 7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글로벌 GK 포 워터 2021 SNS채널챌린지는 총 31,603명이 참여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한국제지가 완주 인증 포스트 1건당 1만원 후원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월드

비전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식은 지난 8월 11일 한국제지에서 진행했으며 한국제지의 후원금과 탄자니아에 은다바시 식수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한국제지 이흥기 영업부장은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프리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한국제지는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눔문화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SNS채널챌린지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6km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릴레이 기부인 활동이다. 개별도심국 아이들이 어려움에 공공하기 위해 나만의 재능을 들고 6km를 걷거나 달린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과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3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 형태로 진행됐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마네칼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건강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도록 최소 5초 뒤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태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충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살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잇몸 예방(소금물 양치, 기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okgeumsu.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체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최후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전도명령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사라지며 전하는 자도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아같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예수님 당시도 열두제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마 10:1-23주하고 공방에는 두 증인같은(마 11:1-19)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는 이때에 박영수 목사와 같은 분이 있어 마치 사탄이 요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출 15:22-26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사흘 동안 물이 없어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물을 지시하시니 그나무로 물을 닿게 하여 온 백성이 목마름에서 해방된 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십자가 대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여 생수를 마시게(요 4:30)한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

해 교회의 전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 완전 포기 상태에 놓여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영수 목사는 끝까지 가족세트 전도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온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에 날선 겐을 가지고 외치는 세례요한 같으며(마 3:1-12) 광야에서 홀로 예수님을 외치며 전한 이시대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다. 세례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전도로 연결한 마지막 선지자라면 박영수 목사는 신약과 종말을 연결하는 마지막 전도자같이 보이는 것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박영수 목사와 같이, 기도하고 복음전도를 끝까지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조영호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69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영남기독교 총연합 성명서 / 부, 울, 경, 경북 기총 및 대구 대목연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에 수많은 트로이 목마 (木馬)가 밀려오고, 발람의 꾀계가 넘치는 도다!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城)은 그리스 연합군이 두고 간 거대한 목마(木馬)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졸지에 무너지고 말았다. 겉으로 보기엔 적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 버리고 간 거대한 목마였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 연합군의 날랜 군사 30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목마에서 기어나 온 그 30명의 군사들은 성안 곳곳에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어 제쳤다. 그리고 물밀 듯이 쳐들어온 잠복해있던 그리스연합군에 의해 난공불락의 트로이성은 속수무책으로 처참하게 함락되고 말았다.

한편,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열병의 심판을 당하였다.(신22~25장) 그것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뇌물을 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 하는 것임을 모암 왕 발람에게 귀뜸 해 주었기 때문이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에 산해진미의 우상의 재물과 현란한 여인들의 향연으로 올무를 놓아 이스라엘을 현혹하였다. 그날 그곳에 몰려간 이스라엘 남정네들은 온통 주지욕림의 음란의 도가니에 빠짐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계2:14) 결국 그날에 이스라엘은 2만 4천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교회)이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와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낮은 연방제 통일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문재인 정권이 연일 '트로이 목마'를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마들은 실로 다양하다. 먼저 소위 '포괄적 소수 차별 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등)이란 것이다. 그 목마 안에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同性愛)의 합법화가 숨겨져 있다. 다수가 오히려 소수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특히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생활이 억압 통제당하는 독소 조항이 교묘히 숨겨져 있다. 이 법은 이미 폐지된 간통법 낙태법과 함께 3중 패키지 음란 조장법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전 국민들을 음란과 환락과 패륜과 태아(胎兒) 살인의 극치를 이루게 하며 이러한 변태적 행위가 합법으로 보장받는 나라로 개조(改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악법은 발람의 올무와 같이 필연적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인류 최초의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수순이 바로 그러한 범죄였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발로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 기본법'이란 목마 속에는 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밑자리 깔기와 같은 무서운 기본법이 주된 자치란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아 언론에 확실한 재갈을 물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목마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정권은 4년여 집권 기간에 소득주도 성장법 목마, 주 52시간 근로법 목마, 과도한 최저임금법 목마, 비정규직 철폐법 목마, 원전 폐쇄법 목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4법의 목마 등등 근 3,500개가 넘는 트로이 목마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계속 끌어들이기 준비된 목마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목마들은 정상적인 국가경쟁을 위한 조치들이 아니란 것이다. 이것들은 북한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철저히 준비된 대한민국 판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목마 속에 감춰진 비밀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신종(新種) 목마는 '코로나19 방역법'이라는 정치 방역 목마이다. 이것은 이 정권에 있어 지난 1년 반 동안 요술 방망이같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전천후 목마이다. 그런데 이 목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전 사회적 분야에 미치는 방역 법(法)이지만 유독 기독교의 목을 조이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확실히 장악 통제하려는 목적 있는 정치 방역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들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과 대전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교회당 안에 최대 99명까지만 허용하되 수용인원 100명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만 가능토록 극약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도 웃을 극약처방을 받아도 절대다수의 특히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맹인이고 찻지 않는 병어리 개들이 되어 묵묵히 따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트로이 목마에 빠져들 나라로 교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 것인가? 결코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의 각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목회자 연합회, 장로 연합회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 행동하는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올바른 신앙을 순교의 각오로 사수(死守)할 것을 다짐하며 본 성명서를 만방에 뵙는다.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 정치와 노동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선진 국가의 반열에 오른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싫습니까?
- 그렇다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공산 독재 왕조 세습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좋습니까?
- 과연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누가 왜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자유와 평화를 포기하고 개 돼지로 살고 있습니까?
-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 어떤 꿈과 희망이 남아있습니까? 누구 말처럼 개천의 봉어 가재 미꾸라지 울창이로 그냥 그렇게 N포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70~80년대의 젊은이들이 가졌던 꿈과 이상과 애국심과 용기가 있습니까?

【30만 목사와 7백만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 지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 1년 반 동안 드러본 소위 비대면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대로 좋습니까?
- 그 큰 예배당에 19명 20명 10% 20%의 성도로 예배드리며 주의 종으로서 자괴감도 없습니까?
- 정녕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 이 정권이 끌어들이는 트로이 목마들의 실체를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결의】

- 우리는 트로이 목마와 같이 교묘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모든 악법들의 제정 및 개정을 결사 항쟁으로 반대한다.
-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변질을 결사항쟁으로 저항한다.
-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교회가 통제 압제 당하거나 예배의 해방을 거부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과 그의 영광이 손상됨을 용납할 수 없다.
- 우리는 오늘의 총체적 난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행으로 행한 결과이며(마7:22~23) 하나님의 보응임을 알고 먼저 통회 자복으로 회개한다.
-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이단을 제외한 교파를 초월한 모든 총회와 각급 기독교 단체들이 같은 날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일제히 미스바와 같은 '한국교회 대 각성 회개'의 주관을 선포, 실시하기를 요구하며 이 일을 각 교단 총회장들이 연합하여 주도 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이 모든 결의 사항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사각오(一死覺悟)로 일치단결하여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주후 2021년 8월 25일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 목회자 연합회 일동

회장:김문훈 목사 총장:강인실 목사 회장:이우탁 목사 총장:김형민 목사 회장:박종희 목사 총장:김성권 목사 회장:신재영 목사 총무:김대원 목사 회장:이상민 목사 총장:김상현 목사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교회 권사

福 받은 자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
가던 길을 멈추고
갈 길에 대해 묻는 자
복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복
택함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받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타인의 모습을 보는 자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는
복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절 경건의 시간에
말씀으로 마음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 복이 어디로 무엇이랴!

웨신대, 하박국 집중 무료공개강좌 진행

강철구 교수 강사로 나서

웨신대(신앙문화대학원대학교)가 8월 30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박국을 본부로 집중 무료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강사로는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철구 교수(구약학)가 나선다.

웨신대 측은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책별 경의 2년간에서 알리지 않는 소책자들을 매학기 개강일에 집중적으로 온라인 무료공개강좌를 열고 있다. 예를 들어 요나, 미가, 하박국, 말라기, 야고보서, 요한 1·2·3장, 유다서 등이다. 신구약이 반갑기며, 이런 개강에는 하박국 주해로 목회자분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웨신대 측은 "독히 현상이 바빠 성경을 갈고 얻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상이 한국 목회자들의 상황"이라며 "본교 성경주해 과정은 90년대 중반부터 20년 이상 성경주해에 특화해 있다. 이런 부흥

에 발맞춰 성경 강해를 위한 깊이 있는 성경주석으로 실재적인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웨신대 성경주해 과정은 석사(M.A.) 2년 과정, 박사(M.D.B.S.) 3년 과정, 신교사 트랙(M.A.) 1년 과정(선교사 장학금 지급)이 있다.

웨신대 성경주해 과정의 특징은 첫째, 성경을 책별로 연구한다. 책별로 강의를 열어 신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한국교회에 올바르게 세우고 삶의 변화를 실증한다.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이 변화해, 살아 있는 교회로 자리잡는다.

웨신대 측은 "집중 무료공개강좌 6월 30일은 하루 동안 한 권의 책을 끝내기에 목회자님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 힘써야 한다

북한의 감정은이 먼저 제의를 해 왔다면서 남북간 통 신선 복원을 지향스럽게 선언했던 정부는 몇 년 동안인 결도 제대로 못하고 뿔뿔해지고 말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이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한다. 감정은에게 위임받았으면서 김영성이 한 말이다. 버트럼바라는 아예 장마당에 팔아먹은 모양이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지(포브스)는 영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ISS)의 분석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북한의 적전 기능한 한미대사 전투기 폭격기는 75대 남짓에 불과 해 500대 이상을 보유한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미대사도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공중전 승 패는 초기에 갈라나다고 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전투기를 한 대도 구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공작기는 75대 정도이고 그 현대적인 것 도 북한 기종이라고 했다. 한국은 500여 대의 신형 공작기 들을 운용하고 있고 두 종류의 스텔스 전투기들을 구입하 는 중이라고 했다. 서문상으로 북한공군전투기가 572대 이지만 모두 1980년거나 1990년에 만든 것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는 체면 불구하고 북한의 하수인만 차단한다.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아프간 정부의 패망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현재 한·미 동맹이 얼마나 견고한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힘 때문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동안 경제 성장과 정치 발 전과 사회 발전을 이룩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미 국에서 원하는 방어를 위한 한·미 군사 훈련도 제대 로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74명 이 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나섰다. 대통령도 알아서 하 라는 식이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지도자들인가?

첫째,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는 '책물 의지'가 없 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 였다. 우리는 지금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면 '타령'이나 만들어내는 줄임말(줄임말)과 무기력한 모 습으로 패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둘째,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경제발전과 거대한 평화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 가? 거기에서 사회 여러 곳에서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정세들이 난무하고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은근히 기대 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불과 며칠 사이에 20년 동안 피 흘린 공이 산산이 부서진 허망한 현실이 되었다. 대한 민국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값비싼 희생을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전쟁으로 국민을 위하 지 않는다. 이슬람은 그를 종교를 위한 국가이며, 공산 주의는 그들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체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만, 국민의 행복도 국가 의 발전과 미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이웃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 이 모든것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정 신을 바짝 차리고, 호국(護國)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국정(國政)과 사회적 분위기는 뭔가 나빠져 많이 풀려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깨어 나야 하고,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사이트: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정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i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 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가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런 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 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공사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031-643-4041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울런 금율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도행전 13:1-3에 나타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